

한덕수, 대선 출마 가시화... 30일 총리직 사퇴 유력



지난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2회 순직의 무궁화의 날 기념식'에서 참배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동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손편지 홍보물 봉입 행사 '이준석과 함께-편지로 정치를 바꾼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내일 국힘 2차 경선 결과 따라 출마 여부 발표 전망
대권 주자들, 단일화 가능성 시사...다음달 3일 양자경선 관측

'여권 빅텐트 기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구체화 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도 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에 따라 단일화 상대의 윤곽이 나온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가 맞붙는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고 한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곧바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의 지지도가 비슷한 상황을 고려하면 다음 달 3일 양자 경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게 당내 대세적인 관측이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논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를 시작으로 홍·한·안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 후보 중에서는 한 권한대행과의 만남 등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려는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보수 진영 대선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본선 경쟁력'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문수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되고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 출마한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단일화를 정

중하게 요청할 것이다"면서 "단일화 빅텐트"는 이번 대선에서 커다란 용광로가 되어 이재명 후보를 굴복시키는 최대 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우리 당 최종 후보와 경선을 통해 결국은 최종 (단일) 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우리 당 후보 일대일로 대결한 결과를 비교하는 게 제일 공평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는 인천 시·구의원들과 만나 "압도적 지지로 (제가)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승리를 이끄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분과 화합·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자신이 보수 진영 후보로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맞붙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됐다.

홍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며 "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못 되더라도 이재명만 잡을 수 있다면 흔쾌히 그 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이르면 오는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각 후보 캠프는 단일화의 구체적인 방식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한 대행 출마를 원하는 당원과 지지층 표심까지 흡수하는 동시에 한 대행이 링에 오를 경우에 대비해 단일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군공항 이전, 주민 수용성·피해 보상 고려”

한국지방신문협회 대선후보 공동 인터뷰 - 국민의힘 김문수

AI 인프라·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尹과 거리 두기, 정치적 도리 아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해 “주민 수용성과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 피해 보상 문제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본인의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등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전에 대한 비전과 지역 공약 등을 공개했다. 또 광주의 AI 인프라 확충과 전남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도 소개했다. 다음은 김문수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광주군 공항 문제 등 전국 군 공항 문제 해법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무안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지역 민심을 반영한 공모방식으로 정해달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 간 갈등과 분쟁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수용성과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 피해 보상 문제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 핵심사업 관련 공약은.

▲김문수는 AI 인프라 확충, 벤처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한 “AI 시대 G3 국가 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AI 대학 교육 지원 강화 및 연구개발 지원 확대로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 참여 민간합동 펀드 100조 조성으로 AI 유

니온 기업을 지원하겠다. AI 기반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조성하겠다.

-대선 출마 포부와 경선 승리 전략은.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치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 뽑는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체제전쟁이나 다름없다. 필사즉생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께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지목해 주신 것은 부패하고 위선적인 이재명 후보에 맞서 이길 가장 강력한 후보가 김문수라는 기대를 하시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빅텐트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단일화를 제1 먼저 제안한 사람은 저 김문수였다. 출마 선언 직후부터 보수후보 ‘단일화’를 줄기차고도 강력하게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적 요구를 담기 위한 절박한 호소였다. 이같은 제 호소는 진심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저 김문수는 청렴을 무기로 단일화 빅텐트를 주도해 부패의 대명사 이재명 후보를 꺾을 것이다.

-강성 보수라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중도 확장력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자부한다. 지난 수십 년 노동 현장과 민주화운동 현장, 그리고 국회의원, 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 등 좌와 우를 모두 경험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해 왔다. 그야말로 다양한 경험을 해 본 준비된 후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대한 견해는.

▲우리 당과 우리 당원들이 만든 대통령이다.



운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동책임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탄핵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거리를 뒤서야 되겠는가. 표를 얻겠다고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건 책임 있는 태도도 아니고 인간적 도리, 정치적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략은.

▲지금 보수의 위기는 ‘실력’과 ‘신뢰’의 위기이다. 과거의 보수는 실력이라도 있었건만, 지금의 보수가 진보를 압도할만한 실력이 있는지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 게다가 내부 결속도 심각한 상황이다.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오래된 정치 격언이 지금은 보수세력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 되고 말았다. 이제 다시 실력을 쌓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민생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과 동고동락하는 자세로 환골탈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오광록 기자 kroh@

“尹 선물 국전, 年 670만원 세금 뒷바라지”

양부남 의원 공개...투르크메니스탄서 받은 2마리 서울대공원서 떠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국민 방문 때 선물 받은 국견(國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에 대한 사육비로 매년 약 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은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소속의 서울대공원이 떠맡아야 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

간 관리비는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원 등이었다.

서울대공원은 작년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 11일부터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는 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자체가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선물이 동·식물인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



양부남 의원

관으로 이관하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대통령기록관 및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와 위탁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이고, 이관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의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